

100-023. 鮮內검사국 정보-3

-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평양 · 대구복심법원 검사장, 각 지방법원 檢事正, 함경북도지사, 조선군사령관, 조선헌병대사령관, 제19사단참모장, 제19사단법무부장, 羅南헌병대장, 청진보호관찰소장, 재간도일본제국총영사, 관내 각 지청검사, 관내 각 경찰서장,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계에게 1937년 10월 30일, 1938년 5월 30일, 1938년 9월 10일, 1939년 6월 6일 등 4차에 걸쳐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 등 예심청구서(기소장), 예심 종결결정서, 판결서의 합철 문서
- 劉濬哲 외 92명이 문서에 등장하며 모두가 함경북도 明川郡 주민들로, 흔히 말하는 ‘明川 제2차 사건’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다.
 - 제1차 사건은, 1934년 4월경 대동하여 1934년 5월에 결성되고 1935년 6월에 검거된 소위 赤色農民組合사건이다. 본 문서는, 제1차 검거로 소멸되었던 적색농민조합을 재건하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1937년 10월 30일 劉濬哲 외 61명의 예심청구와 1938년 1월 30일 許吉松 외 29명의 예심청구가 병합심리되고, 1938년 9월 10일 劉濬哲 외 92명의 예심 종결결정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1939년 6월 6일 판결서의 송부로 종결되었다.
 - 예심청구에서 治安維持法 違反, 不敬, 公務執行妨害, 逃走, 犯人藏匿隱避, 騷擾, 住居侵入, 傷害, 傷害致死, 不法逮捕, 竊盜, 強竊 및 同 未遂, 建造物損壞, 暴力行爲 等 處罰에 관한 法律 違反, 出版法 違反 등 다양한 罪名이 적용되었다.
 - 당시 적색농민조합사건은, 비단 明川郡만의 사건이 아니라 珍島농민조합사건, 三陟농민조합·노동조합사건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사건의 일부로서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었다.
 - 총 975쪽에 달하는 문서로서, 明川農民組合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현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 형량은 劉濬哲 징역 13년을 비롯하여, 馬壽活 징역12년, 金生鐵, 朴昌吉, 許吉松 징역 10년 등 10년 이상이 5명이며, 징역 5년 이상도 金會福, 金在吉을 비롯하여 22명이나 되고, 그 외에 8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기술부분에는 사건 당사자의 성장과정, 교육정도, 그 때까지의 交友, 思想, 활동상황, 생활정도 등이 다양하게 기록되고, 이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 사건관계자는 劉濬哲, 馬壽活, 金生鐵, 金會福, 金在吉, 金永君, 朴宗德, 朴承孫, 金鳳龍, 金俊德, 金童燮, 金明燮, 黃哲峯, 黃海龍, 魚南吉, 韓鍾善, 金明彥, 金學信, 金今祿, 車石峰, 韓泰範, 白鐵原, 李三用, 崔熙瑾, 李鴻鵠, 金月龍, 金昌吉, 李澤龍, 南吉善, 崔天華, 南良月, 崔芳春, 李金蓮, 金鳳俊, 韓在昊, 朴昌吉, 太景龍, 金銀鶴, 許策俊, 朴萬喆, 金洪相, 林在河, 崔鶴鳳, 崔俊南, 太秉周, 李春吉, 崔乙南, 金春植, 金希善, 金浩順, 金長孫, 金丙燮, 朴天綠, 太顯三, 趙龍俊, 安泰嫻, 黃守赫, 朴昌崙, 金浩龍, 李善訓, 玄善極, 太貴孫, 許吉松, 李靑洛, 金泰益, 裴禹鳳, 金東萬, 李靑雲, 玄春東, 金基範, 劉洙榮, 玄桂筍, 李相郁, 崔南允, 鄭崙心, 李澤蓮, 金浩南, 鄭汝和, 鄭甲連, 鄭生永, 申金石, 申七月丕, 鄭一祿, 申今名, 崔仁均, 崔金松, 金喆象, 金泰興, 金一先, 崔英吉, 太四千, 金乙權, 李南吉